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발열의자 · 온실텐트’ 등 여수시 강추위 대책 호응

### 온실텐트 73곳 3월까지 운영 후 철거



여수시가 영하권 강추위 속 버스 정류장에 발열의자와 온실텐트 설치를 늘려가고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버스정류장 발열의자를 기존 44곳에서 54곳까지 늘리고 이달 중 40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온실텐트 서시장 등 73개 정류장에 설치했다.

온실텐트가 설치된 정류장 안쪽은 바깥 기온보다 2~3도가 높고 발열의자도 있어 많은 시민들이 추

위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발열의자는 내부에 열선이 있어 전원이 공급되면 35~38도 정도로 따뜻해진다.

온도센서에 의해 외부온도가 15도 이하일 때만 작동하며 재질은 열전도율이 높은 탄소섬유로 일반 금속선에 비해 전기요금도 25%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12월 시민편의를 위해 발열의자와 온실텐트를 시범 운영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했다.

온실텐트는 3월까지 운영 후 일시 철거했다가 겨울철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매서운 추위를 피할 수 있어 발열의자와 온실텐트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화순군,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 경로당 등 435개소 설치...어르신 호흡기 질환 예방 효과 기대



화순군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경로당을 비롯한 435개 복지시설에 공

기청정기 461대를 설치했다.

공기청정기 보급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를 일정하게 유지해 어르신의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면적, 건물 구조, 이용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급했다.

화순군은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마무리해 기쁘다”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마을 중심 생활공동체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순=박순철 기자

# 완도군, 호랑가시나무 식재로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 완도수목원 진입로 1.1km 구간 색다른 경관 제공

완도군은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이자 유일한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 진입로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가로수길은 1.1km로 완도호랑가시나무 123주와 하층에 신엽이 아릅다운 호가시나무 16,000주가 식재되었으며, 수종 선정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가로수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특히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천리포수목원을 설립한 미국 출신의 민병갈 박사가 1978년 완도지역 식물탐사 중 발견한 우리나라 고유수종이다.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교잡종으로 완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완도의 지명이 붙었으며, 9~10월부터 열매가 익기 시작해 겨울내 빨간색이어서 관광 가치가 높다.

완도수목원 진입로 가로수길 조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가로수는 경관 개선효과가 뛰어난 자원이므로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자생 수종을 활용한 특색 있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할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영암군, 2018년 10대 군정뉴스 발표

영암군에서는 2018년 한해동안 군민·항우·공직자가 함께 군정역량을 집중해 결실을 맺은 10대 군정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군이 선정한 10대 군정뉴스는 ▲민선7기 더욱 새롭게 힘찬 출발 ▲2018 영암방문의 해 성공 마무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郡 살림 5천억 돌파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대성공 ▲제8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대성황 ▲월출산 국화축제 80만명 '인산인해' ▲제43회 영암군민의 날 성료 ▲2019년 청년 진화형 선도 산업단지 공모 선정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공약대상 및 대한민국 최고 지자체 수상 쾌거 등이다.

첫 번째로 군민이 희망인 민선7기가 더욱 새롭게 힘찬 출발을 알렸다. 6만군민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정동평 군수는 군민대통합·군민행복시대 완성 목표로 총력을 경주해 군민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일명영암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 번째, 위대한 영암군민과 공

무원이 함께한 2018 영암방문의 해는 영인문화축제부터 늦가을 월출산 국화축제까지 볼거리가 풍성해 성공적인 마무리로 관광객 3백만명 유지와 남도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세 번째,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로 동분서부한 결과, 정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산업위기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맞춤형일자리 1,766명을 창출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네 번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2017년 체무제로에 이어, 국도비 확보를 위해 하루 1,000km가 넘는 광복행보로 郡 살림이 5천억을 돌파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했다.

다섯 번째, 郡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경기운영과 지원 등 대회 역사상 가장 완벽한 준비로 도민의 찬사가 이어졌다.

여섯 번째, 호남권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영암군이 함께한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일곱 번째, 월출산 국화축제에 80만명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며, 단일축제로 최대 관광객을 기록하였다.

여덟 번째, 더 큰 영암을 향한 전진 약속하는 제43회 영암군민의 날이 위대한 6만 군민과 항우들의 대화합의 장 마련하며 군민·항우 애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아홉 번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69개 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청년 진화형 선도 산업단지 공모 사업에서 대불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되어 민선이후 최대규모의 사업비인 3,119억원의 재정 및 민자가 확보되어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열 번째, 민선6기 공약이행 마무리평가에서 공약대상을 수상했으며 전국 지자체 행복지수평가 2년연속 대상, 대한민국 CEO리더십 3년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 지자체로 우뚝 섰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대나무축제,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선정



담양군에서 대나무를 소재로 개최하는 담양대나무축제가 2019년 문화관광축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친환경 축제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심사해 인증하는 관광브랜드다.

담양대나무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의 대표 친환경 녹색축제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개최된 제20회 대나무축제에서는 담양 지명전년과 대나무축제 20주년을 맞이해 청년 담양의 역사와 함께해온 대나무의 역사를 재조

명하는 대나무역사문화페스티벌과 대나무축제 20주년 기념관을 운영했으며, 대나무어린이놀이터, 악기놀이터, 수학놀이터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축제,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는 청결한 축제, 종사자 모두가 친절한 축제로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나무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제21회 대나무축제에는 1억 7천만 원의 국비 지원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홍보, 마케팅 등 간접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나무 관련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장흥군, 정남진전망대 해맞이 인파로 '복적'

### 인파 1천여명 운집

1일 장흥군 정남진전망대가 2019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인파로 복적였다.

이날 해맞이 행사에는 정준수 장흥군수, 위동 장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민 1천여명이 운집했다.

오전 7시 40분 경 모습을 드러내며 새해 아침을 깨운 해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모습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뤘다.

정남진전망대 해맞이 행사는 지난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의 여파로 해를 건너뛴다 사실상 3년만에 개최했다.

2019년 해맞이 행사는 장흥 군민과 전국의 관광객이 모여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새해 일출콘서트, 희망의 모듬북 공연, 가운 써주기, 소원 성취 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관산읍연영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는 따뜻한 차와 떡국을 준비해 해맞이 인파의 추위를 달렸다.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